

광주상의 회장 감투싸움 “끝”

마형렬 전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19대 후임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광주상의가 광주 대표적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광주상은 오는 11월12일 상공의원 총회를 열고 후임회장을 경선할 예정이다. 김부회장은 “그간의 갈등을 깨끗이 씻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상은 25일 40명의 상공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상공의원총회를 열고 임원 후보와 회장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해 논의했다.

논란이 일었던 임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박홍서 광주상의 회장 직무대행은 “마 전 회장이 최근 비공식 루트를 통해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광주상

마형렬 전 회장 보궐선거 불출마 선언 내달 12일 회장선출...후임 추대 가능성

의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당초 논의하기로 한 임원 후보선거는 폐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40명의 상공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마 전 회장의 불출마 추진과 함께 임원 후보선거 폐기를 결의했다.

한상원 의원은 “지역론자가 불명예스럽게 낙마한 것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금후측이 마 회장을 방문, 그간의 갈등을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성산 부회장은 “이제는 광주상의 내에서 더 이상 금후

니 남양이니 하는 편가르기식 발언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며 “전임 회장이자 지역선배인 마 전 회장을 찾아 흔쾌히 과거의 앙금을 털어버릴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김 부회장은 “광주상의와 지역발전은 한 몸이므로 서로 이해를 결단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광주상의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마 전 회장을 지지하지 않고 후임 회장을 추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열린 상공의원회에서는 “실추된 광주상의와 마 전 회장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임원 후보

구정을 의원총회에 넘기되 논의를 하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공의원 모두가 연대책임을 지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상의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정관개정을 26일 광주시로 보내 승인을 얻은 뒤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보궐선거 체제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의 분위기로는 추대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회장 임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경선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홍서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 몇몇 인사가 후임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지역 중소기업 판매 협약

지역 우수상품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이 25일 광주신세계에서 박춘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전우만 광주신세계 대표, 이봉규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왼쪽부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은 지역 우수 중소기업제품 발굴 및 기술지도, 디자인센터는 디자인 개발 지원, 신세계는 입점 및 판매 지원 등을 하게 된다.

(광주신세계 제공)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농협 최다

올 9월까지 96만1,204건...국민은행 2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 거래는 농협을 통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가 도입된 이후 올해 9월까지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건수는 778만7천438건으로 금융기관 가운데 농협이 96만1천20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국민은행으로 95만8천561건, 우리은행 91만4천474건, 중소기업은행 43만2천604건, 부산은행 399만201건의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보고건수를 금융기관별로 집계하면 농협이 456만8천745건, 증권사가 7만8천68건, 보험이 337건, 우체국·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기타가 218만4천826건 등으로 총 683만1천976건이 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란 하루 현금 수취 및 영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기관이 해당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18일부터 시작했다.

/연합뉴스

업은행 43만2천604건, 부산은행 399만201건의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보고건수를 금융기관별로 집계하면 농협이 456만8천745건, 증권사가 7만8천68건, 보험이 337건, 우체국·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기타가 218만4천826건 등으로 총 683만1천976건이 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란 하루 현금 수취 및 영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기관이 해당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18일부터 시작했다.

/연합뉴스

光銀 공무원 우대통장 판매

광주은행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프리미엄 통장’을 24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로 인터넷, 폰뱅킹 등 전자금융 이용시 수수료 면제, 신용카드 연회비 최초 1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새희망직급,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등을 들 경우 약정 이율에 0.2% 포인트를 더한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3자 이상 공무원 또는 임용 2년 이내인 신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0.3% 포인트를 높은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롯데백화점 제주도 문화탐방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회)이 전남지역 오지 농어촌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주도 문화탐방’을 실시한다. 롯데백화점을 이틀째 다음달 11일까지 전남지역 낙도 및 농촌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문화탐방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참가를 희망하는 사연과 함께 학교장 및 지역 단체장의 추천서를 롯데백화점 광주점 영입총괄팀(062-221-0225)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중 100여명을 선정, 다음달 26~2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제주 문화탐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

코스닥기업 (주)엘림에듀 학원 프랜차이즈 설명회

코스닥 교육전문기업인 (주)엘림에듀의 학원 프랜차이즈 설명회가 31일 오전 1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호에서 열린다.

전국 주요도시 순회형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 엘림에듀측은 “한가지 콘텐츠만을 가진 학원 프랜차이즈를 지양하고 논술 내신 수학 영어 등 통합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원경영관리프로그램 ‘팜퍼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학원을 운영하거나 신규창업 예정인 학원장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엘림에듀 홈페이지(www.edu.co.kr) 또는 전화(1577-4681)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장필수기자 bungy@

은퇴 후 생활 자금 6억3,000만원 필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은퇴 후 생활자금이 6억3천만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연구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자산 및 금융수요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향후 제테크 목적으로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27.9%)을 가장 많이 들었고 이어 자녀교육비 마련(23.0%), 주택구입(전세)자금 마련(16.9%) 등을 꼽았다.

은퇴자금은 평균 6억3천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주택구입에는 1억3천100만원, 개인사업 7천900만원, 자녀교육비 7천500만원, 대학등록금 등 자녀교육비로는 1천900만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예·적금이나 대출 등 금융상품을 통한 방법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필수기자 bungy@

비상! 김장대란

배추·무 재배 면적 작년비 15~27% 급감 김장비용 20% 오를 듯

올해 김장 배추와 무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15~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감소 폭은 농촌경제연구원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김장 대란’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표본농지 3만4천74곳에서 ‘2007년 김장 배추·무 재배면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추와 무의 재배면적이 각각 1만2천178ha, 7천162ha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4천368ha, 9천

758ha에 비해 각각 15.2%, 26.6% 줄어든 것이다.

광우의 경우 배추는 118ha→113ha(-4.23%), 무는 167ha→115ha(-31.1%)로 크게 감소했다. 전남의 경우 배추는 2천70ha→1천677ha(-38.9%), 무는 1천378ha→1천93ha(-20.6%)로 줄었다.

앞서 이달초 농촌경제연구원은 ‘채소 관측 월보’에서 김장에 주로 이용되는 가을배추의 올해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11% 줄어든 것으로 전망했다. 가을무 역시 올해 재배면적이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0%, 19% 축소되고 파종기 비까지 겹쳐 생산량이 작년대비 약 15% 줄 것으로 관측했다.

24일 전남농협 공관장과 함입동 등에 따르면 배추(1단 3포기)는 1년 전 3천361원에서 9천837원으로 193% 올랐고, 무(1개)는 1천300원에서 3천140원으로 141% 뛰었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배추·무의 가격상승을 고려해볼 때 올해 김장비용은 지난해보다 15~20% 더 부담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

지방구직자들 서울로... 서울로...

10명중 7명 희망

지방에 살고 있는 구직자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은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전국의 구직자 1천582명을 대상으로 취업 희망 지역을 설

문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인 81.6%가 ‘서울’이라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수도권 지역 구직자의 87.5%가, 지방 거주 구직자의 68.7%가 이에 응답했다. 이어 경기(5.0%), 인천(2.7%), 제주(2.6%), 울산(1.7%), 부산(1.5%) 등의 순으로 취업 선호

지역이 조사됐다.

지방에 사는 구직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취직하고 싶어하는 거주지역 취업선호도는 울산이 47.2%로 가장 높았다.

인천(36.6%), 대전(23.5%), 대구(22.4%), 부산(19.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6.5%), 경북(7.3%), 전북(7.7%), 충청(7.8%) 등은 거주지역 취업선호도가 낮았다.

/연합뉴스

폐식용유를 경유로
- 바이오디젤 제조기

전남지역 대리점 모집

BIOKIT 바이오킷트(주)

1. 경제적 이점: 폐식용유를 100% 재활용하여 친환경 바이오디젤을 생산. 원유 구매 비용 절감.

2. 환경적 이점: 폐식용유를 처리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 탄소 배출 감소.

3. 기술적 이점: 최신 기술 적용으로 생산 효율성 높임. 유지보수 간편함.

4. 수익적 이점: 바이오디젤 시장 확대에 따른 수익 기회 제공.

문의처: BIOKIT 고객센터 (010-XXXX-XXXX) 또는 웹사이트 (www.biokit.com)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노래방부터 대형 호텔 객실까지... 최적의 성능과 가격! 함께 자랑하자!

무등산업 (Samsung Air Purifier)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제조부서
95%가 넘는 소비자 만족도

1. 탁월한 공기청정 성능: HEPA 필터, UV 살균, 냄새제거.

2. 뛰어난 에너지 효율: Eco 모드, 필터 교체 알림 기능.

3. 다양한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디자인.

4. 스마트 제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제어 가능.

문의처: 무등산업 고객센터 (1522-XXXX-XXXX)